

해 있는 대학당국이나, 학점에만 신경을 곤두 세우고 졸업후에 수입이 많은 직장을 확보할 것 외에는 여념이 없는 학생들은 인간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겨를이 없이 기계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리하여 현대의 한국 대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지혜라는 차원은 차치하고라도, 교양이라는 기본단계에서 우선 고전교육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제 한국의 현대인은 바깥세계를 무시하고 우물안의 개구리식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교양이라는 측면에서 세계의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살 수 있는 기본장비를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과거의 한국 지식인들과 같이 東洋의 古典教育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세대가 오늘의 한국 대학생들이다. 게다가 入試爲主의 수험공부니, 객관식 시험문제니, 상대평가니 해서 지극히 기계적이고 피상적인 교육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세대가 다름아닌 오늘의 한국 대학생들이다. 따라서 요즘과 같이 대학생들의 교양문제가 논란되어온 시대도 드물 것이다. 가히 현대 한국 대학생들은 教養不備의 知識人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3) 現代人과 古典教育

英國의 生物學者이며 동시에 教育者였던 헉슬리(T.H. Huxley)는 교육받은 사람, 즉 지성인을 “人文教育의 定義”라는 그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지성인이란, 어렸을 때 적절한 수련과정을 거쳐서, 그의 육체가 완전히 意志의 지배를 받고, 그의 知力은 냉철하고 논리적이며, 어느 한 쪽으로만 치우침이 없이 발달되어서, 어떠한 종류의 일도 해낼 수 있고, 그의 머리에는 자연의 위대하고도 기본적인 진리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지성인은 발육부전의 금욕주의자가 아니라 활기와 정열이 넘치는 인간인데, 그의 정열은 양심의 하수인인 강한 의지에 의하여 필요한 때에 적절한 제지를 받도록 훈련을 받은 인간이라는 것이다. 헉슬리는 계속해서, 자연적인 것이나 인공적인 것이나 간에 아름다운 것은 모두 사랑하고, 모든 惡을 증오하며, 他人을 자신과 마찬가지로 존중할 수 있도록 수련을 쌓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인간만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가장 인간답게 그리고 인간으로서 가장 효율적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위의 定義가 맞는 것이라면 현대의 知性人像은 헉슬리의 그것에서 너무도 먼 거리에 있다. 러셀(Bertrand Russel)이 그의 “競爭”이라는 글에서 말하고 있는 현대인은 아름다운 계절인 봄이나 가을에 그 계절들이 펼쳐 보여주는 자연의 아름다움에는 전혀 감흥을 느끼지 않고 단지 株式時勢의 변동이 일어나는 계절이라는 측면에서만 봄과 가을의 영향을 받는다. 인간답게 그리고 인간으로서 가장 효율적으로 인생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 역시 고전교육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자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

것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고전교육인 것이다.

무모하고 위협스럽게 자연을 정복하겠다고 나서고, 극도로 이기주의에 빠져 있으며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자연이거나 인공적인 것이나 간에 그것을 이해하고 즐기기는 고사하고 그의 관심의 영역이나 시야에 들어오지도 않고 善과 惡이나, 美와 醜의 개념 이전에 實利性만이 그의 主된 관심사가 되어 있는 현대인은 확실히 인간답게 살고 있는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

기계문명의 급속한 발달로 말미암아 현대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여가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인은 러셀이 지적한 바와 같이 불쌍하게도 여가선용의 건전한 방법을 터득하지 못했다. 여가선용의 건전한 방법도 고전교육을 통해서 터득되는 것이다. 현대인은 여가를 어떻게 쓰는 것이 제대로 쓰는 것인지 몰라서 방황하고 급기야는 아이러니컬하게도 힘들여 얻은 좋은 여가의 제물이 되고 만다.

러셀은 다른 모든 생각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현대에 있어서의 고전교육의 不在 상태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과거의 고전교육을 향수어린 필치로,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즉 과거에는 교육기관이란 크게 말해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즐길 수 없는 델리케이트한 즐거움들을 享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었다. 이 능력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문학작품이나 음악이나 미술의 감상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18세기에는 지성인이라는 칭호는 문학, 미술, 그리고 음악을 제대로 분별해서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에게 주어졌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어떠한가?

현대인의 독서클럽들이 『햄릿』이나 『리어왕』과 같은 고전을 그달의 읽어야 할 책으로 선정한 달이 한 달도 없으며, 단테에 관한 지식을 요하는 독서모임을 가진 달도 한 달도 없었다고 러셀은 말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대인의 독서클럽에서는 어떠한 책들을 읽는가라고 自問하고서는 다음과 같이 自答한다. 즉 현대인들은 전적으로 현대서적만을 읽는데, 이 현대 서적들은 古典이 될 가능성이 전혀 혹은 거의 없다. 그는 계속해서, 불과 50년이나 100년전만 해도 교육받은 사람이라면 웬만큼 좋은 문학작품들은 모두 通讀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극소수의 전문가들만이 이들을 알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인들은 셰익스피어나 밀톤의 작품과 같은, 그 가치를 측량할 길이 없이 훌륭한 작품들은 전혀 읽지 않고, 광포하고 자극적이고 병적이며 터무니없이 어리석은 현대소설만 읽고 있다. 이 자극에 대한 현대인의 병적인 갈증은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그 중에서도 두드러진 것은 현대인이 받은 교육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서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흡사 기계나 동물과 같은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무서운 이야기가 된다.

삶의 지엽적인 것들에 대한 지식은 방대하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文盲인 괴물(monster)의 형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인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현대인이 여지껏 지구상에 살아왔던 인간들과 다른 가슴(heart)을 지닌 동물이거나 혹은 기계가 아니라는 데에 있다. 시대에 따라서, 삶의 지엽적인 것들이 그렇듯이, 수시로 변하는 것이 아닌 가슴을 현대인도 엄연히 지니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삼척동자라도 근본적인 것이 지엽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어느 시대의 인간보다도 영악한, 그러나 지혜롭지는 못한 현대인들은 계속 근본적인 것들을 소홀히 하고 지엽적인 것만 살찌워가고 있는 것이다. 이 현상이 계속된다면 이는 한 인간의 불행 또는 그의 인생파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인간의 집합체인 전 인류의 운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지에까지 다다를 수 있는 가공할만한 현상이고 또 현재 그 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조짐이 이미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대인에게도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줌으로써, 인간은 기계나 동물이 아니고 자유의지를 지닌, 따라서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 책임을 져야하는 존재임을 상기시켜주는 일을 고전교육이 맡아서 해야 한다. 기계문명과 황금탄능주의 풍조의 사회에서 현대판 恐龍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현대인들을 인간다운 인간으로의 회귀를 시켜줄 수 있는 길은 오직 고전교육 뿐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고전교육을 통해서 현대인들이 자기들이 포기해 버린 조용하고 건전한 즐거움들을 享有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도록, 머리와 가슴의 균형이 잡힌 이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해본다 하더라도 귀착점은 같은 곳이다. 즉 우리가 비록 민주주의라는 체제가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기는 하지만,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정치체제 가운데서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국민 모두가 고전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혁슬리의 知性人像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릴 때부터 적절한 수련과정을 거쳐서 육체가 의지의 지배를 받고, 모든 惡을 증오하며, 타인을 자신처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민주주의가 꽃필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인간이 기계가 아니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고로 자기의 처신에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터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민주주의는 설 자리를 잃는 것이다. 하물며 한 국가의 지도자들이 될 지성인들이 혁슬리가 제시한 자질들을 갖추어 가지고 있지 않은, 흡사 괴물을 닮은 비정상적인 인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이끄는 사회나 국가가 참다운 의미의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반면에 지도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고전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라고 가정한다면, 정치체제 가운데서 가장 이상적인 체제인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利點이 첨부된다. 그것은 교육받은 계층 곧 그 사회의 정치적 문화적 지도자가 될 사람

들 사이에 공통된 지적 기반과 가치관의 형성을 가능케하며 문화의 연속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지식층이 공통된 가치관과 문화적 기반을 가진다는 것은 한 사회가 동질성을 유지하고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따라서 현대의 대학생, 그리고 일반 교양인의 知的·精神的 形成에 있어서 古典이 갖는 의미는 중차대한 것이다. 인류가 쌓아올린 경험과 사색의 寶庫인 고전은 우리에게 모든 知的 探求에 선행되는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을, 그리고 모든 도의적 시도에 선행되는 자아인식을 가능하게 해준다. 잡다한 지식과 이데올로기가 난무하되 진정한 인간학이 결여된 이 비정상적인 시대에 고전의 탐독은 정상으로의 회귀를 촉진시켜 줄 것이다. 고전은 피상적이고, 지엽적이며, 비정상적인 것으로부터 근본적이고, 핵심적이며, 정상적인 것으로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해 줄 것이다. 고전교육은 우리를 괴물로서 이 지구상에 서식하게 하지 않고, 인간다운 인간으로서 균형잡힌 삶을 영위하게 해 줄 것이다.

II. 西洋古典 百選

1. 選定 原則

무릇 30세기에 가까운 長久한 세월동안 축적되어온 방대한 양의 西洋의 古典 가운데서, 우리나라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하여 100권이라는 한정된 수효의 도서를 선정하는 일은 지극히 어려운 작업이었다. 즐거운 비명이라는 논평을 들을지는 모르지만, 비슷비슷한 경쟁자들을 무자비하게 탈락시키는 일은 확실히 쉬운 일은 아니었다.

選定過程에서는 세 가지 大原則을 세우고 작업에 임했다. 첫번째 大原則은 인류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고전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그 중에서도 한국문화의 전통 속에 남을 수 있는 고전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는 것이었다. 둘째번 원칙에 대하여 약간 부연한다면, 西洋의 古典 가운데서 한국문화에 영향을 끼쳤고, 또한 끼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이는 작품, 또한 앞으로 우리의 문화와 교육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의의를 지닐 수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의 입장에서 반드시 받아들여야할 서양의 고전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선정하고자 했다. 특히 도덕적인 측면, 즉 물질문명 속에서의 정신관리문제와 직결된 것 같은 작품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려고 했다.

셋째로는 한국의 현대 대학생들을 위해서 산 교양이 되고, 생활의 지혜가 되기에 적합한 고전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는 원칙이었다.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古典’으로서 알려진 모든 서적은 현대 한국의 대학생들을 위한 교양서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그것들을 전부 정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우선순위를 따르는 선택이 불가피했다. 古典읽기를 위한 古典이 아니라 한국 대학생들의 知的의 思考力을 조장하고, 현대 한국인의 건전한 가치관 정립을 위해서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고전을 우

선적으로 선정했다.

다음에 열거하는 것들은 선정과정에서 選者가 준수하려 했던 細目들이다.

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 지나치게 가까운 시기에 쓰여진 작품은, 바로 그 가깝다는 사실 때문에, 소위 美學的 距離(aesthetic distance), 즉 원근법에 필요한 거리의 미달로 인해서 제대로 평가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듯 투시의 거리가 가까워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작가에게는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러한 작가는 긴 시간의 심판을 거친 후 고전의 대열에 끼게 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한 때는 대단한 人氣를 누리지만 세월이 여과된 후 중국에는 망자의 늪 속에 묻히게 될 것인지 아직은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로이트 이후의 작가는 고의로 선정하지 않았음을 밝혀 둔다. 현대의 저술 가운데서 특히 탁월한 것들을 선정하여, 별도로 ‘오늘의 古典’ 叢書를 기획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그러나 비록 현대의 작품이라 할지라도 대단히 많이 읽히고, 고전의 대열에 낄 가능성이 自明한 것들은 몇몇卷 선정했다.

②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작품의 ‘現代性’(modernity)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작품이 쓰여진 年代와 정비례하지는 않는다. 아득히 먼 과거에 쓰여진 작품이 최근에 쓰여진 작품보다 훨씬 더 ‘現代的’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견지에서, 그리고 삶의 지엽적인 측면들이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모한다는 것을 감안해서, 가능한 한 古古典보다는 新古典을 더 많이 선정하려 했다.

③ 국적이나 언어에 상관없이, 즉 어느 나라에 몇 명이라는 配分을 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목소리들, 다시 말해서 삶의 기본문제들을 다루고 그것들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지혜를 담은 목소리들을 주로 선정하려고 했다.

④ 모든 작품이 다 그렇다고 할 수 있겠으나 특히 위대한 작품은 가능한 한 논평없이 직접 독자와 만나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특히 발췌를 한다거나 요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품의 성격상 全文을 읽을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려고 노력했다.

⑤ 聖經은 위대한 古典임에 틀림없지만 여기서는 제외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자기가 좋아하는 형태의 성경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⑥ 소재와 그것을 다룬 방법, 또는 제시된 지식의 종류에 따라서 책을 몇 가지 범주로 나누는 것은 오래된 관습이다. 따라서, 여기서도 작품들을 편의상 (1) 文學, (2) 哲學, (3) 歷史, (4) 社會科學, (5) 自然科學의 다섯 가지 범주로 구분했다. 文學은 詩와 희곡, 소설 그 밖의 온갖 문예 창작품을 포함한다. 哲學은 형이상학, 인식론, 윤리학 등의 저술을 포함한다. 자연과학은 과학과 수학으로,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의 저술을 포함한다. 역사는 주

로 역사에 관한 책들이고, 사회과학은 정치학 저서, 사법 및 법률에 관한 연구서적들이 포함된다. 물론 개중에는 작품의 성격에 신축성이 있어서 어느 한 범주에만 속하는 것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대개 이렇게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누어 처리했다.

⑦ 이렇듯 방대한 양의 고전에 접하게 되면 우선 이 분량에 압도되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며, 어떤 순서로 읽어 나가야 할지 망막한 느낌이 들게 마련이다. 작품 하나하나가 독립된 個體이고 그것 나름으로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작품을 먼저 읽어도 상관없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역시 이상적인 방법은 年代順으로 읽어나가는 것이라고 해야 하겠다.

그 이유는 各世代的 作家群은 그 앞 世代의 고전들을 다 읽고, 그 작품들이 밑거름이 된 토양위에 그들 작품이 꽃을 피웠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선정된 작가의 연대를 가능한 한 표기했다.

2. 古典 百選

(1) 文 學

Homer (연대 미상)

① *Iliad*

② *Obyssey*

Aeschylus (c. 525—456 B.C.)

③ *Tragedies* (selected)

Sophocles (c. 496—c. 406 B.C.)

④ *Tragedies* (selected)

Virgil (70—19 B.C.)

⑤ *Aeneid*

Plutarch (c. 46—120)

⑥ *The Lives of the Noble Grecians and Romans* (selected)

Dante (1265—1321)

⑦ *Divine Comedy*

Chaucer (c. 1340—1400)

⑧ *Canterbury Tales*

Montaigne (1533—1592)

⑨ *Selected Essays*

Cervantes (1547—1616)

⑩ *Don Quizote*

Shakespeare (1564—1616)

- ⑪ *Hamlet*
- ⑫ *Othello*
- ⑬ *King Lear*
- ⑭ *Macbeth*
- ⑮ *The Merchant of Venice*
- ⑯ *Julius Caesar*
- ⑰ *Tempest*

Milton (1608—1674)

- ⑱ *Paradise Lost*

Molière (1622—1673)

- ⑲ *Le Misanthrope*

Bunyan (1628—1688)

- ⑳ *The Pilgrim's Progress*

Swift (1667—1745)

- ㉑ *Gulliver's Travels*

Voltaire (1694—1778)

- ㉒ *Candide*

Goethe (1749—1832)

- ㉓ *Fraust*

Dostoevsky (1821—1881)

- ㉔ *Karamazov Brothers*
- ㉕ *Crime and Punishment*

Tolstoi (1828—1910)

- ㉖ *War and Peace*
- ㉗ *Anna Karenina*

Shaw (1856—1950)

- ㉘ *Man and Superman*

Kafka (1883—1924)

- ㉙ *Das Schloß*

Gide (1869—1951)

- ㉚ *Straight Is the Gate*

Camus (1913—1960)

- ㉛ *L'étranger*

Platon (c. 428—348 B.C.)

③② *The Dialogues* (selected)

Aristoteles (384—322 B.C.)

③③ *Metaphysics*

③④ *Nicomachean Ethics*

③⑤ *Politics*

③⑥ *On Poetics*

Augstine (354—430)

③⑦ *The Confessions*

Descartes (1596—1650)

③⑧ *Discourse on Method*

Pascal (1623—1662)

③⑨ *Pensées*

Spinoza (1632—1677)

④⑩ *Ethics*

Locke (1632—1704)

④⑪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Berkeley (1685—1753)

④⑫ *The Principles of Human Knowledge*

Hume (1711—1776)

④⑬ *An Enquir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Kant (1724—1804)

④⑭ *The Critique of Pure Reason*

④⑮ *The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④⑯ *The Critique of Judgement*

Humboldt (1769—1859)

④⑰ *The Heterogeneity of Language and Its Influence on the Intellectual Development of Mankind*

Hegel (1770—1831)

④⑱ *The Philosophy of Right*

④⑲ *The Philosophy of History*

Mill (1806—1873)

⑤⑩ *On Liberty*

⑤⑪ *Utilitarianism*

Darwin (1809—1882)

⑤② *The Origin of Species*

Kierkegaard (1813—1855)

⑤③ *Either/Or*

⑤④ *Stages on Life's Way*

Nietzsche (1844—1900)

⑤⑤ *Beyond Good and Evil*

⑤⑥ *Thus Spoke Zarathustra*

Heidegger (1889—1976)

⑤⑦ *Sein und Zeit*

Bergson (1859—1941)

⑤⑧ *The Creative Mind*

(3) 社會科學

Machiavelli (1469—1527)

⑤⑨ *The Prince*

More (1478—1535)

⑥⑩ *Utopia*

Hobbes (1588—1679)

⑥⑪ *Leviathan*

Montesquieu (1689—1755)

⑥⑫ *De l'esprit des Lois*

Rousseau (1712—1778)

⑥⑬ *A Treatise on the Social Contract*

Smith (1723—1790)

⑥⑭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Bakunin (1814—1876)

⑥⑮ *The State*

Marx (1818—1883)

⑥⑯ *Capital*

James (1842—1910)

⑥⑰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Freud (1856—1939)

⑥⑱ *The Interpretation of Dream*

⑥9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s*

Durkheim (1858—1917)

⑦0 *Suicide*⑦1 *The Division of Labour*

Dewey (1859—1952)

⑦2 *Democracy and Education*

Weber (1864—1920)

⑦3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⑦4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Geist des Kapitalismus*

Jung (1875—1961)

⑦5 *Psychology and Religion*

Keynes (1883—1946)

⑦6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Nalinowski (1884—1942)

⑦7 *Sex and Repression in Savage Society*

Benedict (1887—1948)

⑦8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

Mannheim (1893—1947)

⑦9 *Ideology and Utopia*

Laski (1893—1950)

⑧0 *Liberity in the Modern Society*

Myrdal (1893—)

⑧1 *Asian Drama*

Mead (1901—1978)

⑧2 *Coming of Age in Samoa*

Skinner (1904—)

⑧3 *Beyond Freedom and Dignity*

(4) 歷史

Herodotus (c. 484—425 B.C.)

⑧4 *History*

Thucydides (c. 460—400 B.C.)

⑧5 *History of the Peloponnesian War*

Gibbon (1737—1794)

86 *The Decline and Fall of the Roman Empire*

Burchardt (1818—1897)

87 *Die Kultur der Renaissance in Italien*

Toynbee (1889—1975)

88 *A Study of History*

Carr (1892—1982)

89 *What Is History?*

Lefebvre (1874—1959)

90 *Quatre-Ving-Neuf*

Bloch (1886—1944)

91 *La Societe Féodale*

(5) 自然科學

Lucretius (c. 98—55 B.C.)

92 *On the Nature of Things*

Nicomachus (c. 100)

93 *Introduction to Arithmetic*

Kepler (1571—1630)

94 *Epitome of Copernican Astronomy*

Galileo (1564—1642)

95 *Dialogues concerning the Two New Sciences*

Newton (1642—1727)

96 *Mathematical Principles of Natural Philosophy*

97 *Optics*

Fourier (1768—1830)

98 *Theory of Heat*

Farady (1791—1867)

99 *Experimental Researches in Electricity*

Einstein (1879—1955)

100 *The Meaning of Relativity*

III. 結 語

현대에 있어서 고전교육의 약화현상은 凡世界的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고찰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가 심해서 자못 심각한 상태에 다다라 있다고 간주된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우리나라의 특수한 여건으로 인하여 오로지 경제발전에만 총력을 기울인 나머지 인간발전이라는 측면은 지나치게 소홀한 대접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경제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는 향상되었으므로 그동안 소홀히 해 온 정신적인 면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해야 하는 때가 바야흐로 당도했다고 간주된다. 이제부터는 인간발전의 테두리 안에서 경제발전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이 인간을 행복으로 이끄는 지름길인 것이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고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은 교양이나 삶의 지혜를 갖출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따라서 그들의 가치관의 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가, 현실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감각이나 판단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뚜렷이 드러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원래는 哲學이 제기했던 삶에 관한 기본적인 물음들, 곧 善과 惡은 어떤 것이고, 자연은 어떤 것이고, 국가란 어떤 것이고 美와 醜는 어떤 것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가 등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오늘의 한국 대학생들은 고전을 탐구해야 한다. 책을 통해서 先賢들과 끊임없는 대화를 나누어서 영약스럽기만 하고 지혜는 없는, 괴물 형상의 인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다시 말해서 기능인으로서의 지식만 갖춘 기계같은 인간이 아니고 全人格體로서, 가슴과 머리가 균형이 잡힌 온전한 인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전작가들의 주된 관심사는 사회현상이나 자연현상 및 그 속에 숨어 있는 어떤 법칙이 아니라 육체와 정신을 겸비하고 있는 다양한 개체로서의 인간이었다. 고전작가는 인간이 역사적으로 이룩해 놓은 문화를 학습과 연구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인간을 이해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전을 必히 읽어야 하는 이유는 너무도 자명하다고 하겠다.

인간이면서 인간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뒷전으로 미뤄놓고, 오직 ‘실리성’, ‘효율성’에만 강세를 두어 완전히 主客이 전도된 교육을 하고 있는 우리 시대에서, 고전은 우리로 하여금 맹목적으로 치달던 걸음을 멈추고, 우리가 정신없이 추구하고 있는 이 ‘실리성’, ‘효율성’이 과연 궁극적으로 인간의 행복에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기여하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해 주는 것이다.

고전을 연구함으로써 이미 인류가 이루어 놓은 업적들 속에 숨겨져 있는 지혜나 가치들을 발굴해내게 되고 그것들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의식속에서 다시 확인되는 것이다. 고전연구를 하지 않는다면 인류가 이미 이루어 놓은 문화는 애석하게도 망각의 잣더미 속에 파묻히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역사의 발전이란 생각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더욱 두려운 것은 고전을 연구하지 않는다면 현대인은 계속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종말은 인류전체의 파탄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고전작품은 논리적인 사고의 측면보다는 情意的 이해를 요하는 것들로써 분석적인 방법에 의해서 보다는 주로 간접적인 체험과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셰익스피어에 ‘관한’ 책들, 즉 비평서나 논문들을 읽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그의 작품을 직접 읽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곧 책을 읽어서 지식이 풍부해진다기 보다는 情意的 이해, 즉 간접적인 체험과 참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풍요로워진다는 것이다. 이야기를 좀더 끌고 나가 본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은 一回的인 것이지만 고전을 읽음으로써, 비록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다양한 삶의 체험을 해서 삶의 一回性이라는 숙명적인 인간의 한계성을 뛰어 넘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중요성이 너무도 자명한 고전교육을 터무니없게도 그동안 지나치게 소홀히 해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고전들을 선정해서 읽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韓國古典의 形成과 그 意義

沈 在 龍

(哲學科 助教授)

目 次

1. 韓國古典의 現況
2. 韓國古典의 形成
3. 韓國古典의 意義
4. 結 語
附：印度 및 佛敎의 古典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뵈

고인을 못 봐도

예던 길 알패 있네

예던 길 알패 있거니

아니 예고 어쩔고.

退溪 李 滉

(1501~1570)

陶山 十二曲 가운데 後六曲의 셋째 수를 끝머리로 삼는다.

1. 韓國古典의 現況

1.1. ‘한국고전’이란 개념은 서로 다른 두 가지 개념을 나란히 묶어 놓은 것이다. ‘고전’이 때와 곳을 가리지 않는 불변의 진리를 제시해 주는 책으로 이해될 때, ‘한국’이란 곳으로 한정된 고전 즉 ‘한국고전’은 이미 영원불멸하는 진리를 내포한 책으로 부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고전이란 말은 문제성이 있는 개념이다.

단순히 한국의 옛 전적을 지칭하는 서지학적 차원에서의 한국고전이 아니라, 명실상부 한국고유의 주체적 사상이 한국인의 손으로 저술되었거나, 한국고유의 문자로 기록되어서 한국인의 독특한 문화를 내포하며 동시에 범세계적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되어 한국의 고전

* 본 논문은 1982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한 것임.

* 이 글을 쓰는 데 몇 분의 도움을 받았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적어 놓고 싶다. 筆者의 淺學非才를 이끌어 주시고 채찍을 아끼지 않으시는 本研究責任者 金泰吉교수의 厚誼를 우선 기록한다. 韓國古典形成史의 큰 줄거리를 잡아볼 수 있는 實學關係 논문에 눈을 뜨게 해준 분은 同途의 崔柄憲교수였다. 또 同學 權寧珉교수는 1930年代에 일어났던 古典研究熱과 그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당시의 일간신문 및 잡지기사 등 자료를 제공하였다. 철학과 대학원 T.A. 李奉宰군은 시중 책방과 도서관을 드나들며 現行 한국고전관계서적목록 작성에 한 손을 덜어주었다.

들이 세계의 고전 가운데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한국고전’이 문제성이 있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先人들이 남긴 전적을 그대로 古典이라 아니면 名著라 이름을 붙여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다.¹⁾ 오래되어 묵은 옛날 책으로서의 古典들이 계속 人生의 길잡이나 학문의 안내역으로 傳承되어 내려오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름난 책 즉 名著로 탈바꿈했든가, 아니면 ‘古典’과 ‘名著’ 사이에 뚜렷한 구분의 기준이 따로 있는지, 필자는 아직 들어 본 적이 없다.²⁾

이름이야 어찌 되었든 1960년대부터 우리는 부적 ‘한국의 것들’ ‘우리 것들’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는 사실을 목도함과 동시에, 한국의 고전·명저·대저 등이 책방을 메우고 있는 사실을 지나쳐 버릴 수 없다.

1.2. 한국것—우리것에 대한 관심의 고조를 설명해 보자. 우리들은 이제 80년대의 중반을 넘어 21세기를 바라보고 있다. 우리 한국인들의 20세기는 19세기 말로부터 근 백여년 말과 글로 다할 수 없는 수난으로 점철되어 있다. 서구열강의 재빠른 모방으로 근대화의 대열에 뒤늦게 기여든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한민족문화말살정책에 희생된 한국인 제 1세대는 정신을 차리고 자기의 정위치를 확인하기도 전에 낡은 두루마기를 ‘당포바지’나 ‘몸뻍’로 갈아입고, 일본어를 國語로 常用해야하는 비극을 감수해야 했다. 36년간 日帝下の 한국지성인들은 反日저항운동과 애국운동을 동일시함으로써 주체적 자각과 자존심을 유지했으나, 해방 뒤의 적극적 자립과 自主的 창조적 문화활동에는 그 동안의 소극적 반항에 단 것이 왔던 타성 때문이었던가 별로 괄목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오히려 日帝에게 제 나라까지 빼앗긴 못난 자신이 불쌍하고 그 못난 조상이 미웠던 때문인지 우리의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고리타분하고 못생긴 것으로 치부해서 돌아보려하지 않았다. 西洋의 文物이면 무엇이든 좋았다. 서양의 사상만이 우리를 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이요, 올바른 생각

- 1) 後者の 例로 1969年 9月 玄岩社에서 낸 <韓國의 名著>와 1980年 12月 세종대왕기념사업회의 교양국사총서 36으로 나온 <한국의 명저>가 있다. 前者의 例로서는 1969년 정월 월간잡지 新東亞 별책부록으로 나온 <한국의 고전백선>이 있다.
- 2) 우리가 논의하려는 한국고전에 名著·大著·古典을 구분하려는 목자가 자의로 선별기준을 들고 나올 수도 있겠다. 6세기 中國僧 慧皎(497~554)는 책이 아니라 사람 그 중에도 옛 스님네(古僧)를 評하여 傳記를 수록할 적에 名僧과 高僧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若實行潛光則高而不名.

寡德適時則名而不高.

(大正新修大藏經 50卷 519a)

‘여지껏 끌어 모은 스님네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名僧에 관한 것들이었다. 그런데 아다시피 이름이란 본래 알찬 내용이 없는 걸잡질이다. 만약 행실은 돈독하나 구태여 빛을 들어내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않고 가만히 떨어져서 사람이 있다면 그 德이 높으나 그 이름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가하면 德은 없이 때를 잘 타고나면 이름은 나지만 덕이 높다고 말할 수 없다. 이제 나는 덕이 높고 이름이 나지 않은 高僧만을 간추려기록 한다’

글자를 따라가며 걸잡질인 이름들을 구분짓는 작업을 筆者는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名著이건 古典이건 한국고전의 현황을 살피고 그 역사의 뿌리를 캐며 앞으로 어떤 책을 과연 한국고전으로 삼을 것인가 연구해 보려는 목적이 있을 뿐이다. 출판의 양으로 따지면야 홍미위주의 퍼부감 각자각제 아니면 입시위주의 요점정리서가 서울의 종잇값을 울리는 유명한 책이겠지만…….